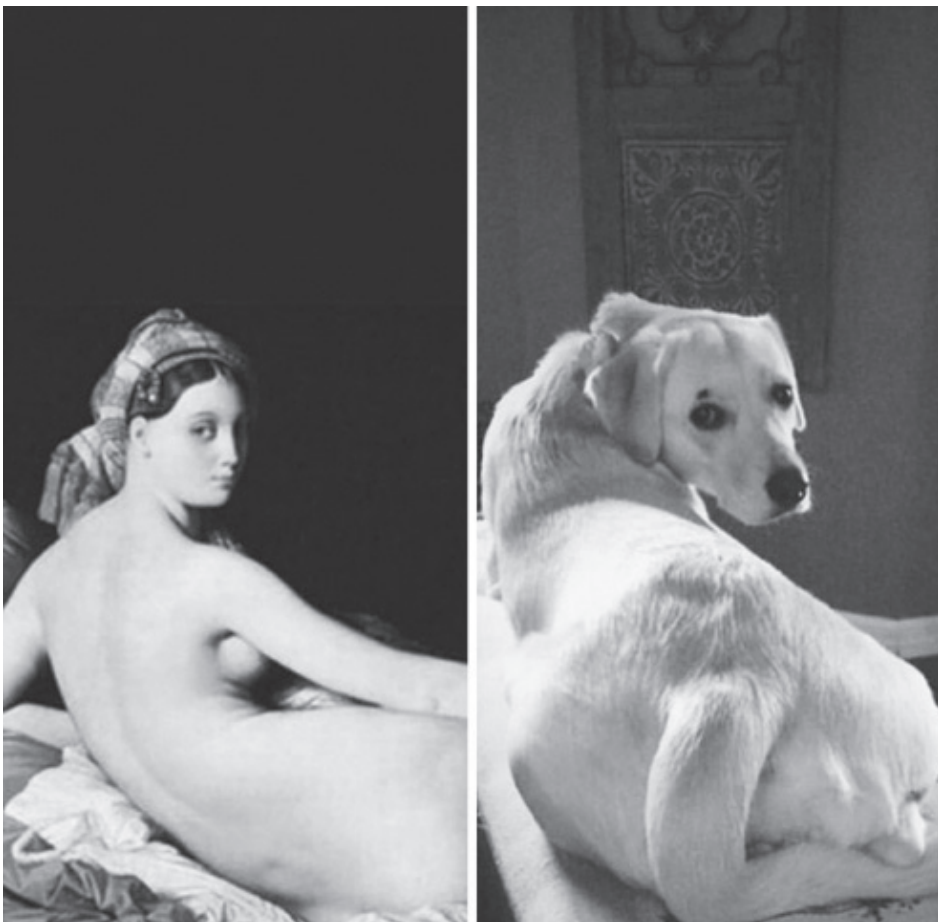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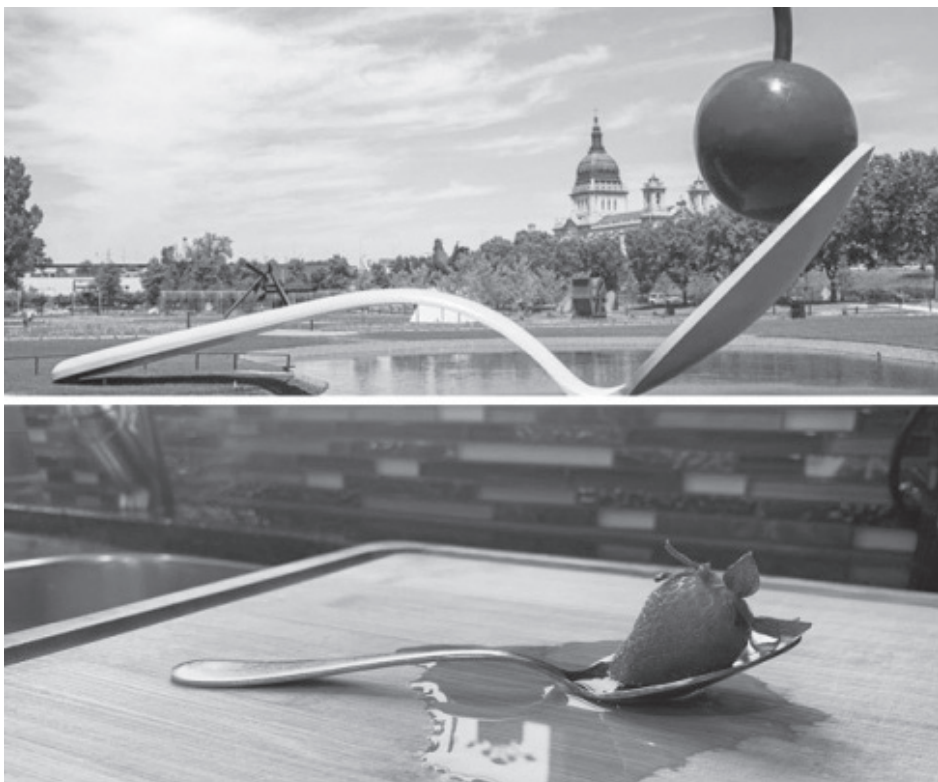


'예술과 격리 사이'...코로나19로 재해석된 미술 작품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지루해진 사람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크고 작은 유행들과 재미를 만들어 냈다. 짧은 동영상들 만들어 공유하는 틱톡이 큰 인기를 끌고, 다소 긴 시간을 들여 만들어야 하는 달코나 커피, 수플레 계란말이 등이 화제가 됐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폴 게티 미술관'은 집안에 갇혀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재미난 챌린지 이벤트를 시행했다. 이벤트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작품을 하나 선택한다. 둘째, 집에 있는 소품들을 찾아 준비한다. 셋째, 소품을 사용해 미술작품을 해석해 재창조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완료됐다면 사진을 찍어 미술관 SNS를 통해 공유하면 된다. 지난 3월 해당 이벤트가 공지된 이후 사람들은 재미난 작품들을 게시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재미와 동시에 기발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사진은 보는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고 있다.

폴 게티 미술관이 시행한 이번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Tussen Kunst en Quarantaine(Between Art and Quarantine, 예술과 격리 사이)'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미술관 SNS를 통해 공유된 것과 유사한 사진들이 매일 업로드 되고 있다.

이외에도 폴 게티 미술관은 미술관에 오기 힘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우리는 '샌드백'이 아니다!"...무고한 경찰 폭행한 흑인 남성들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반대로 경찰이 시민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오후 3시경, 런던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 2명은 인도를 지나다 자신들에게 손질을 하며 정지신호를 보내는 시민들을 본 뒤 순찰차에서 내렸다.

현장에는 총 4명의 남성이 있었고, 이들 중 2명은 경찰이 가까이 오자마자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일부 행인들은 미처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이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때 마침 자신의 집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23세 남성 캠란이 곧바로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뛰어 내려갔다. 본능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경찰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방망이로 폭행 가해자들을 위협하며 경찰로부터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캠란은 데일리메일과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스마



트폰으로 폭행 현장을 찍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경찰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경찰관은 발로 차이고 머리를 맞는 등 공격을 받으면서도, 상황을 훨씬 악화시키지 않고 폭행 가해자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흑인 공동체와 경찰 사이에는 많은 분노가 쌓여있



는 상황"이라면서 "나는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는 쪽이 흑인이었어도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고롭게도 공격을 당한 경찰은 백인, 경찰을 공격한 시민은 흑인이었고,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어 폭행을 당한 백인 경찰의 동료는 백인이 아니었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지나친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부 흑인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장인 켈 마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우리(경찰)는 '사회의 샌드백'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런던과 영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충분히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잘못이 없는) 우리 경찰

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격받는 경찰을 도와 준 캠란의 용기에 감사를 표한다. 다른 사람들은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지만, 그는 이 일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렸고, 충분히 찬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들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폭행 가해자들은 현재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설명: 흑인 시민들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 중 한 명에게 다짜고짜 폭행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캡처

백인 경찰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흑인 행인